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위장병*
-『고양이』와 『만한 이곳저곳』을 중심으로-

장남호**
subarasi@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2. 본론
2.1 위장병과 구샤미(苦沙彌)
2.2 위장병과『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ころどころ)』
2.3 만한 여행의 동기
3. 나가며

主題語: 위장병(gastroenteropathy), 만한(Manchurian & Korean), 고양이(Cat), 구샤미(Kushami), 전쟁(war), 기피(evasion)

1. 들어가며

> 이 육체는 언제 어떠한 변을 당할 지도 모른다. 그건 고사하고 지금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다. 소름끼치는 일이다.[1)] (12권, p.7)

미완으로 끝난 소세키의 마지막 작품『명암(明暗)』[2)]의 제 2장은 꽃구경을 갔다가 돌발적으로 일어난 고통을 경험한 주인공 쓰다(津田)가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전차 안에서 속수무책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자신이 소유한 육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쓰다의 언급을 통해 병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충남대학교 국외파견 연수경비 지원에 의해 작성됨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작품의 원문인용은『소세키전집(漱石全集)』(1994, 岩波書店)에 의하며 논자가 번역하였다. 인용문 뒤에는 인용 권수와 쪽수를 기입하였다.
2) 1916.05.26~1916.12.14, 朝日新聞

다소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살아가면서 병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근대기인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시대를 살아간 최고의 지식인이자 대문호인 작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라 함)가 평생 각종 질병에 시달려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어렸을 때 천연두에 걸려 그의 얼굴에는 평생 흔적이 남아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신경쇠약과 폐결핵, 눈의 결막염, 위장병, 당뇨병, 치질로 고생하였다. 그리고 사인은 위궤양이었다.

이처럼 일생동안 다양한 병을 경험한 소세키는 작품 속에도 자신이 체험했던 병들을 소재로 삼았다. 특히 소세키의 처녀작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3]에서는 위병에 시달리는 진노 구샤미(珍野 苦沙弥)가 등장하고 있으며, 『마음(こころ)』[4]에서는 신장병에 시달리는 다수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행인(行人)』[5]에서는 신경쇠약에 걸린 이치로(一郎)가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마지막 작품인 『명암』에서도 치질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소세키의 작품은 병과의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세키의 병적에 관련된 연구로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소세키의 신경쇠약이나 신경증을 중심으로 한 정신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신체적인 병에 대한 연구는 이렇다 할 만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인간은 몸과 정신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소세키의 정신적인 병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그가 평생을 거쳐 고통받아온 신체적인 질병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소세키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병인 위궤양의 경우 신체적 질병인 위장병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소세키가 이 위장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세키는 특히 오랜 세월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위장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작품 속에서 위장병을 앓고 있는 인물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양이』에서는 소세키를 대변하고 있는 구샤미가 위장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기행문인 『만한 이곳저곳(満韓ところどころ)』[6]에서는 여행 기간 동안 실제 자신이 체험했던 위장병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세키가 가지고 있던 위장병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에서는 소세키가 위장병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의 양상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양이』와 『만한 이곳저곳』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1905년부터 1906년까지 잡지『ホトトギス』에 연재, 이하 『고양이』라 함
4) 1914.04~1914.08, 朝日新聞
5) 1912.12~1913.11, 朝日新聞
6) 1909.10~1909.12, 朝日新聞

나아가 위장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만한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동기를 당시 소세키의 주변 상황과 관련지어 고찰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체적 질병이 소세키의 심적 세계와 작품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위장병과 구샤미(苦沙彌)

『고양이』는 다카하마 교시(高浜虚子, 1874~1959)의 권유를 받은 소세키가 1904년 12월에 쓴 처녀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무명(無名)의 고양이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구샤미는 작가 소세키를 연상시킨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서술하는 종래의 소설과는 달리 고양이가 인간의 생태를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신선한 착상이었다. 고양이의 눈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볼 수 없는, 또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마치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비평해 나가는 구조를 취하여 소세키는 인간의 입으로는 차마 내뱉을 수 없었던 비판적인 시선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소세키의 비판적인 의도는 다음의 편지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주인도 나라고 하면 나, 타인이라고 하면 타인 어느 쪽으로도 된다. 아무튼 자신의 결점이 가장 쓰기 쉽고 무난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기 전에 자신의 험담을 해 두는 편이 멋지지 않겠는가. (22권, p.344)

1905년 1월 1일 노무라 마사쓰네(野村真綱)앞으로 보낸 편지에 소세키는 자신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주변과 사회 일반적인 모순, 그리고 이를 인간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인간이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결함,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세키의 비판적인 자세의 시발점은 작품을 집필하던 당시의 상황과도 연결된다. 『고양이』를 집필하던 당시 소세키는 영국 유학시절부터 지속된 위장병과 신경쇠약에 줄곧 시달리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의 직업에 관해서도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905년 4월 7일 오쓰카 호지(大塚保治)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강의활동과 교사생활에 대한 소세키의 불만을

살펴볼 수 있다.

> 나는 지금 대학의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학교를 사직하고 싶다. 학교의 강의보다 고양이를 쓰고 있는 것이 낫다. (22권, p.375)

소세키가 강의에 대하여 강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학론(文学論)』의 서문[7]에도 드러나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소세키의 강의 수준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영국 유학 시절부터 시작된 부인 교코(鏡子)와의 불화를 들 수 있다. 부인은 유학 시절 동안 소세키에게 제대로 된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소세키는 귀국한 이후에도 부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품게 되었다. 또한 귀국 이후 소세키를 가장 극심하게 괴롭혔던 것은 바로 경제적인 불안이었다. 당시 소세키가 도쿄대나 제일 고등학교에서 받았던 급료는 경제적인 원조를 바라던 친척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였다.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존재인 가정과 가족에게조차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했던 소세키는 자신이 품고 있던 심리적 불안과 번뇌를 『고양이』라는 작품을 통해 투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소세키는 선진국인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에 돌아와서 느낀 격차를 통해 일본 사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직업에 대한 불만과 가정사에서 비롯된 번뇌,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만들어낸 소세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고양이』의 구샤미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정서적으로 동서양의 문명에 번뇌하면서 심한 위장병에 시달리던 구샤미는 당시 소세키의 육체와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구샤미의 모습과 그가 앓고 있던 위장병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소세키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위장병이 불러일으킨 문제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샤미 집에 기거하는 화자인 고양이 '나(吾輩)'는, 자신의 눈에 비친 구샤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해준다. '나'는 구샤미가 "문메이(文明) 중학교의 영어교사이며 학교를 졸업하고 9년 정도 지난, 나이는 30에 가까운"인물이라 소개한다. 당시 소세키가 대학 영어교사로 나이가 40세에 가까웠다는 것을 본다면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약 10년 전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샤미는 편협한 성격의 소유자로 항상 위가 좋지 않아 노이로제 증상을

7) "강의는 매주 3시간으로 1903년 9월에 시작되어 1905년 6월에 걸쳐서 전후 2학년으로 하여 끝난다. 강의 당시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자극을 학생에게 주지 않으려 애를 썼다"라는 서술이 있다. (『漱石全集』14권, p.11 초출『문학론(文学論)』1905.1, 帝国文学)

보였다. 얼굴은 천연두 흔적이 남아 있어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머리는 길이 20치 정도로 왼쪽으로 가르마를 타고 있으며 그 생김새는 마치 너구리 인형과도 같았다. 또한 담배는 아사히(朝日)를 피우고 술은 원래 마시지 못하나 보통 때라면 2잔 정도는 마신다고 묘사된다. 구샤미는 늘 단조로운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데, '나'는 반복되는 일과를 보내는 교사생활 만큼 편한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며 주인의 단조로운 생활 패턴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다 할 특별한 특징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교사 구샤미를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위약(胃弱)[8]'과 '위병(胃病)'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주인은 항상 과식을 하여 소화제를 먹곤 하는데 이는 고양이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말하는데 그가 매번 과식을 하여 소화제를 먹는 모순적인 모습을 비판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구샤미는 아무 일이나 일단 손을 대고 싶어 하는 성격으로 시를 지어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를 하거나, 활쏘기에 열중하기도 하고 노래를 배우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막상 그가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맹점을 보인다. '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며 "위가 나쁜 주제에 열심은 무척 열심"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주인인 구샤미의 서재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의 눈을 통해 서술되는 생활 정경 묘사 속에는 구샤미가 가지고 있는 위장병과 관련된 묘사가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그 묘사는 위장병 환자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소세키가 위장병 증상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는 흔히 낮잠을 자고 있다. 때로는 펼쳐진 책 위에 침을 흘리고 있다. 그는 위가 나빠서 얼굴이 누렇고 탄력이 없으며 활발하지 못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주제에 밥을 많이 먹는다. 밥을 잔뜩 퍼 넣고는 소화제 다카디아스타제를 먹은 뒤에 책을 펼친다. 두세 페이지 읽으면 졸음이 온다. 침을 책 위에 흘린다. 이것이 그가 매일 저녁 되풀이하는 일과다. (1권, p.6)

이 묘사는 위장병 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위장병 환자들은 신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피부에 탄력이 없고, 대부분 기력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소화제를 상용한다. 당시의 유명한 소화제인 다카디아스타제(タカジヤスターゼ)를 구샤미가 복용했다는 사실이 문장 속에서 드러나 있는데, 다카디아스타제는 1894년 다카미네 조키치(高峰城吉)가 효모에서 개발한 소화제로 10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용되고 있는 약이다.

대식가인 구샤미는 과식을 할 때마다 다카디아스타제를 상용하고 있지만 그 효능은 인정하

8) 위의 작용이 쇠약해진 증상의 총칭. 소세키는 젊을 때부터 위의 지병이 있었다.(『漱石全集』1권, p.571)

지 않는다. 저녁 식사 중 “위약증(胃弱症)에는 반주가 제일 좋다. 다카디아스타제는 전혀 소용이 없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역시 아닌 건 아니다. 아무리 써 봐도 효력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며 다카디아스타제의 효능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부인이 내놓은 다카디아스타제에 대해서 “그건 약효가 없으니까 안 먹겠어”라고 투정을 부리는데 부인이 “요전까지는 대단히 잘 듣는다. 잘 듣는다 하면서 잘 잡수셨잖아요.”라고 하자 그는 “일전에는 들었지만 요즈음은 안 듣는다니까.”라며 논쟁을 벌인다. 부인이 “그렇게 먹다 말다 하면 아무리 효능이 좋은 약도 들을 리가 없어요. 위병은 다른 병과 달라서 좀 더 참을성이 있어야 해요”라고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지만 구샤미는 “하여튼 안 먹는다면 안 먹어, 여자가 뭘 알아. 잠자코 있어”라며 그녀를 무시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이러한 구샤미와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소세키가 당시 위장약으로 복용되던 다카디아스타제를 복용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구샤미가 약의 효능에 대해 의심했던 것처럼 소세키 역시 다카디아스타제의 효능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위병이 병원치료나 제약회사의 소화제인 다카디아스타제로는 도저히 치료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구샤미는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다른 약을 복용하여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한다. 당시 무 속에 디아스타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은 구샤미는 사에키 다타스(佐伯矩)가 개발한 무 디아스타제(大根ジアスターゼ)[9]가 소화를 촉진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다.

구샤미는 자신을 괴롭히는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니기도 하고 약을 처방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부인의 태도는 다소 냉소적이다. “아마키(甘木)의사도 그런 환자에게 걸려서야 재난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아냥거리며 “아마키 선생의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잼을 먹어서야 위병이 나을 리가 없다”고 하며 잼을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비난한다. 당시 구샤미의 위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 간게쓰(寒月)와 실업가인 다다라 산페이(多々良三平)는 그의 위병 통증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집안에만 틀어 박혀 있지 말고 외출을 권해보라고 부인에게 말한다.

> 선생님은 어지간하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집안에만 틀어 박혀서. 사모님, 그래서는 위병은 낫지 않습니다. 간혹 우에노(上野)라도 좋으니 꽃구경을 가도록 권해보세요.
>
> (1권, pp.205-206)

그러나 부인은 “여자가 하는 말은 듣지 않으니까”라고 말하며 구샤미의 위병은 결국 본인의

9) 荻原弘道(1960)『日本栄養学史』国民栄養協会, p.29

귀찮아하는 성격과 잼과 같은 단 것을 좋아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든 원인은 결국 당사자에게 있다고 힐책한다. 즉 위장병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이나 다른 민간요법에만 매진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을 엿볼 수 있다.

『고양이』의 구샤미처럼 소세키 역시 단 것을 매우 좋아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집필 활동에 권태로움을 느낄 때마다 거실을 드나들며 과자를 찾았고 딸기 잼을 한 달에 무려 8통이나 비워 의사에게 저지당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부인은 아이들을 위해 만든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남편 몰래 숨기기도 하였다.[10] 단 것을 좋아하는 습관으로 인해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소세키 역시 구샤미가 부인에게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것이다.

『고양이』에서 구샤미의 위병은 등장인물 모두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특히 구샤미의 친구인 메테(迷亭)는 구샤미를 '위약', '위병환자'로 취급하며 경멸스럽다는 듯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 20세기의 오늘날과 같이 교통의 발달이나 연회의 증가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군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제 2년째가 되는 이 때, 우리들은 반드시 로마인을 본받아 목욕·구토의 방법을 연구할 기회에 이르렀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도상에 있는 일본국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 모두가 대형처럼 위병환자가 될 것이라 마음속으로 은근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
> (1권, pp.58-59)

메테가 말한 "로마인을 본받아 목욕·구토의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할 때 목욕 전에 먹었던 음식을 전부 토해 내 위장 속을 비우고 뱃속이 깨끗해지면 다시 음식을 먹었던 과거 로마인들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구샤미의 위병은 결국 위가 좋지 않으면서도 항상 과식을 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병이 결국 스스로의 생활 습관에 있다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은 구샤미는 위병 치료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자가 치료를 시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성격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위가 좋아진다는 말에 2~3일 정도 굶었지만 결국 배에서 소리가 나서 그만 두었다. 그리고 모든 위병은 채소절임을 먹어서 생겨나므로 채소절임을 끊으면 위병의 원인이 없어져 완치가 된다는 논법을 보고 1주일간 시행을 했으나 결국에는 이도 효험이 없어 그만 두었다. 또한 배에다 하는 안마치료가

10) http://www.ombas.co.jp/drkida/post-17.html (검색일 : 2015.2.1)

위병을 근치시킬 수 있다고 해서 시도하였으나 혼수상태를 느낄 것 같아서 그만 두었다. 고형체를 먹지 말라고 해서 우유만 마셨더니 창자 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만두었다. 횡격막 호흡으로 내장을 운동시키면 위의 기능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 하여 시도했으나 뱃속이 불안정하여 그만 두었다. 메밀국수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시도했으나 설사가 나서 그만 두었다.

여러 민간요법을 시도했으나 결국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구샤미는 간게쓰와 정종을 마시던 중 위의 고통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날 이후 매일 저녁 두 세잔의 반주를 곁들이기로 결심한다.

열거한 한 바와 같이 구샤미는 위병의 치료를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일시적인 안정을 취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병에서 치유될 수 없었다. 이는 구샤미의 위병이 단순한 위병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동반된 신경성 위염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양이』에서는 실제 위병환자들의 고통과 증상, 당시 유행했던 치료제, 그리고 민간요법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소세키가 자신을 괴롭히는 위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작품 속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구샤미가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법에 매진하는 모습은 소세키가 그 위병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위병으로 고통 받고 있던 소세키는 소설뿐만 아니라 기행문을 통해서도 자신의 위장병에 대한 실제 경험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만한 이곳저곳』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위장병과 『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ころどころ)』

신경쇠약과 위병으로 괴로워하던 소세키는 1909년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친구였던 만주철도의 총재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의 초청을 받아 만주와 조선을 여행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ころどころ)』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여행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출발 날짜가 결정되어 채비를 하고 있던 소세키는 갑자기 위병이 도져 병상에 눕고 마는데 첫 장에서 소세키는 당시 자신의 위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갑자기 급성 위 카타르(胃カタール)로 인해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약속도 중요시여기는 나라도, 출발까지 완쾌될지 어떨지는 스스로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계가 새까만 덩어리”로 보이며 “빨리 죽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고 그 고통의 극심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약속을 깨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소세키가 여행의 일정을 연기해야 했던 이유는 자신의 지병이었던 위병 때문이었다. 소세키는 이때의 상황을 장녀 후데코(筆子)의 피아노 선생이었던 나카지마 로쿠로(中島六郎)에게 보낸 1909년 8월 24일자 편지에도 자세하게 써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생은 이미 알고 있으시다시피 몇 해 전부터 위가 약했지만 이번과 같이 급성 카타르를 일으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일시적으로는 구토증상까지 생겨 스스로도 살아있는 것이 싫증날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운이 좋게도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인간의 욕망이 생겨나 이렇게 편지도 누워서 쓸 수 있게 될 정도가 되었으니 어쨌든 안심해 주십시오. (23권, pp.288-289)

당시의 위중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이다. 소세키는 평소에도 위가 안 좋긴 하였지만 이때처럼 급성으로 인해 구토증상까지 보인 것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소세키는 위에 가스가 가득 차 "인간은 무슨 필요가 있어 밥을 먹는지 알 수 없는 동물이다"라 하며 인간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음식물 섭취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얼음을 씹고 있으면 청정결백하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소세키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조차 부정할 정도로 여행 직전에 발병한 위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세키는 왕진 온 의사가 여행은 무리이니 그만두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만한 여행을 떠난다. 1909년 8월 24일 나카지마 로쿠로에게 보낸 편지에 "만주여행은 친구의 권유로 온 것으로 머무는 체재 일자도 부정확하다"[11]고 말했다. 당시 『아사히 신문』에 업을 두고 있었던 42세의 소세키가 "체재 일자도 부정확"한 여행을 떠난 것은 위병을 비롯하여 자신을 괴롭히던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욕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행길에 오른 소세키의 모습은 『만한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여행을 떠남으로써 지병인 위병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세키의 일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왔던 위병은 여행길에서도 손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은 듯하다.

소세키는 대련에서 3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된다. 호텔에서 가져온 요리를 모두 맛있게 먹어치웠지만 소세키는 "위가 아파서 나이프와 포크는 움직이는 흉내를 낼 뿐, 사실 고기나 야채를 목에 처넣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또한 가와무라(河村)

11) 舊版『漱石全集』19권, p.87

조사과장과 대화가 끝난 뒤 가진 식사자리에서도 “위가 콕콕 쑤시듯이 아파서 말에 억양을 붙이기는 커녕 소리를 내지도 못했고, 기운을 차리려고 해도 몸이 가라앉아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표현한다. 그 후 영업보고서의 검토를 의뢰받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여 그 의뢰를 사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런 증상은 계속되었다.

또 가와사키(川崎) 조선소의 스다(須田)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던 소세키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예전과 같이 배가 아파서 유감스럽지만 사양하고 침실에서 스프를 마시고 자버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 배 주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살 만져보니 역시 이상했다. 왠지 내 위가 아침부터 나를 배반하려는 듯한 불안이 엿보였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가 하고 국소를 눌러보니 아무데도 반응이 없었다. 단지 흐린 하늘처럼 통증이 희미하게 전면으로 퍼진다. (12권, p.256)

이처럼 여행 기간 동안 만성 위병에 시달리던 소세키는 대련(大連)의 약국에서 위장약을 구입하여 먹어보기도 하였지만 증상은 완화되지 않았다. 위병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소세키는 어느 날 친구인 제코가 말린 복어를 씹으며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저런 딱딱한 것을 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거기 잼을 갖고 있으면 조금 주게, 왠지 나도 위가 나빠진 것 같으니. 그러니 위가 나쁠 때는 말린 복어든 뭐든지 많이 먹어 위병을 놀래게 해 주어야 한다네. 그러면 반드시 나을 것이야”라고 술회한다. 소세키는 상대방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자신의 위병이 다시 도지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다소 유별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소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하시모토(橋本)는 소세키와 같은 위병을 앓게 되면서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후 하시모토는 소세키가 누군가의 초대를 거절하며 곤란해 할 때마다 “이 분은 정말 심각한 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며 그를 대변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소세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낀 하시모토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기도 한다.

> 여행 중에 그대가 위병인지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연을 권해서 아주 미안했네, 뭐든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이렇게 위병으로 곤혹을 치르니 비로소 알겠어. 아플 때는 연설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럼에도 그대가 힘차게 연단에 선 것은 정말 놀랍네. 아주 칭찬해 주고 싶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네. (12권, pp.289-290)

이 장면은 소세키가 위병에 시달리면서도 주어진 일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준다. 소세키는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유와 부탁을 마다하지 못한 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한 여행길에서 소세키의 위 상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점차 심각해져 갔다. 여순(旅順)에서 낮 동안에 쌓인 피로를 풀고 위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탈피하기 위해 식사도 건너뛰고 목욕만 하고 자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 대련으로 돌아가기 전 메추라기 요리를 맛있게 먹은 소세키는 "무의식중에 너무 많이 먹었다. 내 위 속에 들어간 뼈 분량만 해도 상당하다"고 술회하며 자신의 과식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대련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여행 기간 동안 소세키는 나름대로 위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잼을 씹기도 하고 당시 방향 해독제인 호단(宝丹)을 먹기도 하고, 배설제를 쓰기고 하고 본국에서 가져온 가루약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호단이란 에도(江戸)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유명한 위장약이고, 가루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앞서 『고양이』에서 구샤미가 복용했던 다카디아스타제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행 도중의 소세키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된다. 어느 날 소세키는 광산을 방문하여 광차를 타게 되는데 그 수레의 속력 때문에 "본래 나빴던 위가 더욱 나빠졌다"고 하는 표현처럼 위에 더부룩함을 느낀다. 산을 내려오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에 뭔가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고통이 그친다"고 생각하여 배 한 개를 집어 들고 먹었지만 위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다. 밥반찬으로 나온 네모난 두부를 한 모 먹었더니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석회석 덩어리로 변해 위 속을 꽉 막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이후 봉천(奉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가 나쁜 나 같은 사람은 밥상 위만 바라보고 있어도 배가 가득 찬다"고 언급한다. 이는 소세키가 여행 도중에 위장의 악화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결국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소세키가 『만한 이곳저곳』에 기록한 위병에 대한 체험을 살펴보았다. 여행 기록을 통하여 출발 직전부터 소세키를 괴롭히던 위병은 여행 도중에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끝없이 그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위장병 치료는 양방이나 한방을 통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로서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치유가 쉽지 않은 병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위장병이 일으키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세키는 평생 만성 위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상과 고통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가 체재일자도 부정확한 타국의 여행을 떠나기에는 힘들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세키가 요양을 포기하면서까지 만한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3 만한 여행의 동기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세키가 만한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동기는 무엇일까. 이를 『만한 이곳저곳』, 일기 그리고 서간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친구인 나카무라 제코가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보고 오는 것이 좋다. 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기만 한다면 오히려 폐만 되니까"[12] 라고 한 말에 동의한 것이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이것만이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소세키가 만한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당시 발발했던 러일전쟁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했던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소세키가 살아간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기도 했다. 1894년부터 다음해에 걸쳐 조선 지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청일전쟁, 1904년, 1905년의 만주와 조선 지배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러일전쟁, 두 전쟁은 소세키의 20대, 그리고 30대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렇다면 청일전쟁 당시의 소세키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까.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 소세키는 갑자기 근무하고 있던 도쿄 고등 사범학교의 교사직과 도쿄 전문학교의 강사직을 그만두고, 야마구치(山口)고등학교에서 받은 제안도 거절하며 에히메(愛媛)의 마쓰야마(松山)중학교로 부임한다. 이는 아무리 고액의 봉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도쿄대학을 나오고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가 도쿄나 도심지가 아닌 시코쿠(四國)의 작은 마을로 이직을 결심한 결단에는 깊은 고민과 번뇌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마루야 사이이치(丸谷才一)는 그 번뇌의 원인이 징병 기피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시골 교사가 될 것을 결정한 소세키가 2년 전부터 신경쇠약에 시달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청일전쟁은 아마 소세키의 마쓰야마 부임 직후이다. 4월 11일에 끝이 났다. 일반 청년들에게 있어 자국의 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에 소세키의 경우 약 2년 전에 징병기피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때 어떤 처치를

12) 『漱石全集』12권, p.227

>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자신은 지금쯤 군인이 되어 전장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13]

반면 이에 대하여 에토 준(江藤淳)은 소세키의 낙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그가 거리적으로 먼 장소로 부임한 것은 그만큼 깊게 자기 내면으로 하락하여 황폐해진 바닥에서 '생'의 근원을 찾아내고 싶다는 암흑의 충동을 충족시키려고 했다는 가설을 들추어내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다. 즉 도쿄와 마쓰야마와의 거리는 '시대'와 그의 존재의 핵과의 거리, 또는 사회적인 역할로서 그가 받아들인 영문학자, 영어교사라고 하는 직업과 그의 본래의 자신과의 거리이다.[14]

에토 준의 논은 소세키의 낙향이 징병기피보다도 소세키 자신이 스스로의 생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추구한 것이라 보고 있다. 나아가 그는 또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소세키가 1892년 4월 홋카이도(北海道)에 이적한 것은 죽은 형수인 도세(登世)를 사모했기 때문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즉 형이 새로운 형수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피'한 것은 징병보다도 형의 세 번째 결혼이었다"고 보았다.[15]

그러나 이러한 가정사 때문에 분가까지 해서 홋카이도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에토 준의 의견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징병으로 인해 도쿄 고등 사범학교의 영어교사가 된 이후 소세키가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었다고 보는 마루야의 고찰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징병을 피하게 된 소세키는 자신과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생명을 버려야만했던 군국적인 풍조 속에서 이유는 무엇이 되었든 자기를 대신하여 전장에서 전사한 동년배에 대해 마음의 빚을 가졌을 것이고 이것이 소세키를 괴롭힌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러일전쟁은 소세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은 소세키가 영국 유학으로부터 돌아온 이듬해였다. 소세키는 「종군행」, 「정노(征露)의 노래」를 『제국문학(帝國文學)』에 발표하고, 『문학론(文学論)』을 작성하였으며 1905년 1월에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연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자면 당시 소세키는 전쟁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

13) 丸谷才一(1969)「徴兵忌避者としての夏目漱石」『展望』
14) 江藤淳(1979)『決定版夏目漱石』新潮文庫, p.260
15) 위의 책 14) 江藤淳(1979), p.260

창작활동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루야는 "「종군행」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결코 전쟁의 찬가가 아닌 추악한 느낌의 어둡고 비참한 것"[16]이 내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며, 이것이 단순히 전쟁을 미화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시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즈 도시히코(伊豆利彦)는 같은 흐름으로 "「종군행」이 러일전쟁으로 촉발되어 쓴 시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전쟁 시가 아닌, 어두운 소세키의 내부세계의 표현이다. 러일전쟁이 소세키의 내부세계의 표현 계기가 되어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만든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17]라고 하며, 소세키가 내부세계의 암흑을 쓰게 된 전환점으로 「종군행」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의 소세키의 작품 테마를 정확하게 지적한 논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이에 대해 고마샤쿠 기미(駒尺喜美)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적어도 러일전쟁 발발 당시에는 소세키도 흥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와신상담 끝에 삼국 간섭의 굴욕을 씻었다고 하는 국가적 캠페인에 의해 달아오른 국민감정에는 대국에 대항하는 그만한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자기본위(自己本位)'를 통해 서구숭배를 극히 비판해 온 소세키가 이에 연루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18]

관점에 따라 고마샤쿠의 지적과 같이 당시 소세키가 어느 정도 국가적, 국민적 분위기와 흐름에 휘말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군행」이라는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군비의 확충과 전의고양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정치지도자의 요구에 따라 소세키가 흐름을 함께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이 가져온 피해는 청일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를 소세키가 간과했을까. 일본사[19]에 의하면 먼저 전쟁에 동원된 총 병력을 보더라도 청일전쟁에서는 20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러일전쟁에서는 바야흐로 백만 명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비극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사자는 청일전쟁에서는 1만 3천을 조금 넘은 것에 비해 러일전쟁에서는 8만 명을 훨씬 넘는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두 전쟁의 차이는 전쟁 경비를 비교해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청일전쟁의 전투 기간은 10개월로 약 2억4천7만5천 엔을 소비했는데, 러일전쟁의 경우 이를 훨씬 뛰어넘는 19억5천4백

16) 위의 책 13) 丸谷才一(1969)
17) 伊豆利彦(1972)「日露戦争と作家への道)」『日本文学』
18) 駒尺喜美(1972)「漱石における厭戦文学」『日本文学』
19) 坂本太郎(1958)『日本史』山川出版社, pp.520-524

만 엔이라는 거액의 비용이 사용되었다. 이는 전쟁 전 8년 치의 통상예산을 소비한 셈이다. 그 비용의 3할 이상을 외국 부채가 뒷받침하고 있었다.

따라서 러일전쟁은 청일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의 희생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전쟁의 피해와 희생을 당시의 지식인인 소세키가 간과하지 않았음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소세키는 38년 2월에 쓴 『고양이』의 제2장에서 전쟁의 실상을 비판하고 있다. 제2장에는 메테가 '목매는 소나무(首懸の松)'에서 목을 매려고 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가 목을 매려는 이유는 다음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 나의 초등학교 시대의 벗으로 이번 전쟁에 나와 죽거나 부상당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이 세상이 따분해지면서 인간은 역시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권, p.68)

죽은 자들을 생각하며 산책을 하던 메테는 "황혼, 전사, 노쇠, 무상신속이라 하는 상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어느 순간 죽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이는 국가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어간 젊은이들에 대한 소세키의 애상을 메테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양이』의 제6장에는 전쟁 당시 일치단결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한 유행어인 '야마토 정신(大和魂)'에 대하여 서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 "야마토(大和) 정신! 이라 외치며 일본인이 폐병과 같은 기침을 내뱉었다"
>
> "야마토 정신! 이라 신문행상이 말한다. 야마토 정신!이라 소매치기가 말한다. 야마토 정신이 일약하여 바다를 건넜다. 영국에서 야마토 정신의 연설을 한다. 독일에서 야마토 정신의 연극을 한다."
>
> "도고(東郷)대장이 야마토 정신을 가지고 있다. 생선장수 긴(銀)씨도 야마토 정신을 가지고 있다. 사기꾼, 소매치기, 살인자도 야마토 정신을 가지고 있다."
>
> "아무도 입에 담지 않는 자가 없지만 아무도 본 자는 없다. 모두 들은 적은 있으나 아무도 접한 자가 없다. 야마토 정신은 덴구(天狗)와도 같은 것인가." (1권, pp.262-263)

모두가 열을 올리며 야마토 정신을 외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이미 바래 버렸다고 보는 소세키의 풍자를 통해 전쟁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소세키의 염세적인 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다.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과 전쟁이 만들어 낸 비극과 희생을 자각한 소세키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전쟁의 실체와 그것이 만들어 낸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으며 이것이 만한 여행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만한 여행을 떠나게 된 또 다른 동기는 당시 소세키를 둘러싼 가정적인 문제였다. 즉 가정적인 번뇌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던 욕구가 몸이 성치 않았던 소세키를 만한으로 출발하게 만든 기폭제가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로한 부모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소세키는 부모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다. 수양아들로 본가를 나가게 된 것은 그가 태어난 바로 직후의 일이었고 거기다가 2살 때에는 하급관사였던 시오바라 쇼노스케(塩原昌之介)의 양자가 되었지만, 결국 10살 때 의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다시 생가에 돌아오게 되는 복잡한 유년시절을 보내게 된다. 제1고등중학교(대학 예비문)를 졸업한 22살까지 소세키는 시오바라의 성을 사용하면서 생가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에 대하여 에토 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러한 불행한 유년시절의 기억은 이후 평생에 거쳐 작가를 괴롭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디에 또는 누구에게 속해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불안의 감정으로, 여기에서 자신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인간존재의 근본적인 문제에 미치는 거리는 실로 가까웠을 것이다.[20]

복잡한 가정사에서 비롯된 소속감의 부재는 소세키를 고뇌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으며 이 개인적인 불행을 더욱 확대시킨 것이 의부인 시오바라 쇼노스케가 불러일으킨 금전문제였다. 이는 자전적 소설인 『미치쿠사(道草)』[21]의 테마로 다루어지며 자세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당시 이 문제로 인해 소세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1909년 4월 11일자 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시오바라가 소송인가 뭔가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하여 다카다(高田)와 형이 방문하였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다. 몰상식한 탐욕스러운 놈이다. 정(情) 문제를 들추어내며 꺼내는 출금 문제를 거절한다. 권리문제라면 조금이라도 내줄 생각이 없다. 자신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을 쏟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위협을 받는다한들 조금이라도 내줄 생각이 없다.
>
> (20권, p.22)

---

20) 江藤淳(1967)「明治の一知識人」『江藤淳著作集 1』講談社, p.138
21) 1915.06.03～1915.09.14, 『朝日新聞』

소세키가 시오바라를 "몰상식한 탐욕스러운 놈"이라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가 의부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학대를 짐작할 수 있으며, 당시 소세키가 복잡한 가정적인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시오바라에게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소세키는 위병으로 인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체재 기간도 정하지 않은 장기간의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는 소세키가 요양을 위해 일본에 머물러 있다 한들 의부에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인 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자신을 둘러싼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당분간 자유를 느끼고 싶다는 소세키의 욕구가 여행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나가며

이상으로 소세키를 평생 괴롭힌 위병이 작품『고양이』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구샤미의 모습을 통해 고찰해 보았고, 당시 위병으로 고통 받는 와중에도 여행을 떠났던 소세키의 모습을『만한 이곳저곳』을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소세키가 위병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한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동기를 시대적 배경과 개인사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보았다.

전쟁의 시대를 살아온 소세키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승리하고 아시아에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실태를 확인하고 싶은 사회적인 관심과 가정적인 고뇌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상응하여 만한여행을 떠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세키는 만한여행이 한참 진행 중인 1909년 9월 21일자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에게 보낸 편지에 "이러고 있으니 문학이든 소설이든 하는 것은 전혀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네"라고 썼는데 이는 비록 여행길에서 위병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은 있었으나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인 치유를 구하고자 했던 소세키의 염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즉 여행하는 동안 소세키는 옛날 친구들과 만나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대학 시절의 추억 속에 잠길 수 있었고, 부탁받은 강연의 대부분을 거절하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부담 없는 여행을 즐기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이 여행은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 겉으로는 어느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여행이었다.

그러나 만한의 여행이 어릴 적부터 그를 괴롭힌 가정문제나 징병을 피했던 젊을 때의 내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소세키는 귀족과 같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만한 여행지 곳곳에서 또다시 위장병을 일으켰는데, 이는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 진 고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귀국 후의 만한여행기는 신문 연재가 중단되었고, 곧 이어 위궤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고양이』 마지막 부분에서 맥주에 취해 항아리 속에 빠져 죽게 된 '나(吾輩)'는 "주인은 조만간 위병으로 죽는다"고 단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소세키가 처음 소설을 쓸 때부터 자신은 평생을 시달려 온 위병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스스로의 운명을 예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세키가 만한 여행을 떠난 것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했던 일종의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參考文獻】

[텍스트]
『漱石全集』第一巻 岩波書店(1994)
『漱石全集』第十一巻 岩波書店(1994)
『漱石全集』第十二巻 岩波書店(1994)
『漱石全集』第十四巻 岩波書店(1994)
『漱石全集』第二十巻 岩波書店(1994)
『漱石全集』第二十二巻 岩波書店(1994)
『漱石全集』第二十三巻 岩波書店(1994)

[논저]
荻原弘道(1960)『日本栄養学史』国民栄養協会
丸谷才一(1969)「徴兵忌避者としての夏目漱石」『展望』
江藤淳(1979)『決定版夏目漱石』新潮文庫
江藤淳(1967)「明治の一知識人」『江藤淳著作集 1』講談社
伊豆利彦(1972)「日露戦争と作家への道」『日本文学』
駒尺喜美(1972)「漱石における厭戦文学」『日本文学』
坂本太郎(1958)『日本史』山川出版社
http://www.ombas.co.jp/drkida/post-17.html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要旨>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위장병

－『고양이』와 『만한 이곳저곳』을 중심으로 －

소세키의 삶과 작품은 병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생명을 앗아간 위궤양은 위장병에서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소세키의 위장병을『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와『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ころどこ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병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만한 여행을 결행한 소세키의 동기를 고찰해 보았다.

『고양이』에서는 위병을 시달리는 구샤미를 통해 소세키가 가지고 있었던 위병과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정리하였다.『만한 이곳저곳』에서는 위장병의 연장선에서 소세키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위의 통증을 파악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42일간의 여행을 시도한 동기를 고찰해보았다.

만한 여행의 동기는 소세키의 가정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원인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소세키가 살아간 시대는 전쟁시대였다. 스스로 징병기피의 고뇌를 갖고 있던 소세키에게도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전쟁터였던 만주와 한국은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에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실태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잠재되어 있었다. 또한 소세키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가정적인 번민이 소속감의 부재를 불러일으켰고,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삶을 옭아매는 의부와의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욕구가 만주와 한국 여행을 떠나게 한 또 다른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세키의 위장병은 단순한 위나 장의 염증이 아니라 신경쇠약에 따른, 즉 정신적 질환이 동반된 위궤양으로 확대되어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앓고 있던 육체를 괴롭힌 위장병과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가정적, 사회적인 번민에서 벗어나고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소세키는 만한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

A study of Soseki Natsume

－Mainly on stomach and intestines disease－

I think the life and the work of Soseki to be a fight with the illness. The gastric ulcer that snatched his life began in particular with stomach and intestines disease. This article checked stomach and intestines disease of Soseki around <*I Am a Cat*> and <*Manchuria and Korea, Here and There*>. And I considered a motive of Soseki who carried out trip to Manchuria and Korea while feeling pain for stomach disease.

I arranged the figure which made an effort to treat chronic stomach disease of Soseki and the disease through a pain Kusami suffered from stomach disease in <I Am a Cat>. I grasped the pain of the stomach which Soseki expressed openly in an extension line of stomach and intestines disease in the Manchuria and Korea and considered the motive that tried a 42-day trip in such situation. The motive of the trip to Manchuria and Korea tried approach from a homey reason of Soseki and a social cause.

The times that Soseki lived in were wartime. Not only Manchurian and Korea which were Sino-Japanese War, a battlefield of the Russia and Japan war for Soseki who had a suffering of the draft evasion by oneself were objects of the interest, but also a desire to want to confirm the Japanese actual situation that opened a colonial policy was underlying in Asia in those days.

In addition, the homey agony that I experienced from early childhood reminds Soseki of the absence of the position feeling, and there is the desire that I want to escape from the tangle with the father-in-law who restricts the life of oneself even after it is come of age to, and the other motive that it came to leave for Manchurian and the trip to Korea can consider it that it was.

As for stomach and intestines disease of Soseki, it was the gastric ulcer that with the nervous breakdown namely a mental disease was accompanied by not inflammation of the simple stomach and bowels and enlarged it and I died and have driven him after all. I think that the reason why Soseki started on trip to Manchuria and Korea is that he wanted to explore a solution out of stomach and intestines disease and mental agony.